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Island로 부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관련 지원 확대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7월 21일 행원풍력단지를 방문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과 함께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활용 열병합 발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장관은 2007년에는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750kW급 풍력발전기 2기를 제주지역에 시범 보급하고,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는 청정에너지과를 7.1일부터 신설하고, “삼다도”라 하여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7m/s로서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97년부터 산업자원부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행원에 풍력발전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축된 행원풍력발전단지는 매년 21,900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9,000여 가구에 공급하고, 전력 판매 수입도 연간 14억원에 이른다.

행원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등에 힘입어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04년 한경면 지역에 6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국내 처음으로 민간풍력 상업화 시대를 열었으며, '09년까지 34MW의 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월정지역에는 국내 최초로 두산중공업, 에기연 등이 공동으로 4MW규모의 해상풍력 실증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풍력발전과 함께, 태양에너지의 보급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에 15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을 지원하여 섬 지역 전체 46가구의 전기공급을 자립화한데 이어, 서귀포 동광마을, 한라산 뒷세오름 등 국립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주시 전역에 약 5천기 정도의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되어 있다.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열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 매립가스 및 하수처리장 발생 매탄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자원부에서는 천혜 관광자원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環上도로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실증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주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의 2.1%를 충당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따라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에너지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제주도의 우수한 자연여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제주도가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Island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자력 핵심·원천기술 확보 위한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5) 수립

- 핵심 전략적 목표설정으로 선진화 및 해외 진출기반 구축 -

산업자원부는 원자력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06. 5)에 따라 원자력 기술개발의 효율성 및 통합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와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기술개발 중장기 추

진계획인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5)”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할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5)”은 원전 기술의 선진화 및 해외진출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원전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기본방향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전기술 육성 및 핵심·원전기술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주력사업을 대상으로 중점전략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전력기술을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실용화를 고려한 기술 Needs 반영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등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공동(협력)연구를 확대 추진하여 효율적·체계적 기술개발을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기술로드맵(e-TRM)을 반영한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로드맵을 근간으로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 원자력의 역할 증대로 중장기과제를 발굴, 투자할 계획이다.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5)” 수립을 위하여 산·학·연간 역할분담 등을 활용하여 「Nu-Tech 2015 TF 팀」을 5개월간(7~11) 구성·운영하여 도출된 결과를 설명회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심의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세계 4위권의 원전 기술 수준을 달성하여 해외 진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최대전력수요 5,526만 3천kW로 사상 최고 기록

- 공급예비율 14.1%로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4일 현재 최대전력수요가 5,526만 3천kW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대전력수요 갱신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무더운 날씨(전국 평균 30.2℃)와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지수(80.9)로 에어컨 등의 냉방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급예비율이 14.1%에 달해 전력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올해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63만2천kW가 증가(1.2%)한 수치이며, 날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